

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도 비만군은 식행동에서 '단음식을 먹지않는다'에 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 $p < 0.05$ )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활동종류와 시간에서도 각군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비만아동의 높은 영양소 섭취량은 강한 조절장애상태나 강한 공복감의 존재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비만아동의 심리적인면을 연계한 식행동 연구들이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P1-11】

#### 미국거주 한인 아동의 비만 발생에 관한 연구 - 한국거주아동과의 비교를 통한 -

박계월 · 심영자<sup>1)</sup> · 송주미<sup>1)</sup> · 김은경<sup>1)</sup>

강릉대학교 식품과학과, 뉴욕대학교 식품영양학과<sup>1)</sup>

본 연구는 한국(서울)에 살고 있는 331명의 어린이와 미국(뉴저지)으로 이주한 262명의 한국어린이, 총 593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비만 발생에 있어서 환경요인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의 신장, 체중, 허리둘레 및 엉덩이둘레 및 부모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였다. 또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아동의 식생활태도와 식습관, 식품섭취 빈도를 조사하였다. 비만 발생율을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미국 거주 아동이 12.6%로 한국 거주 아동의 8.0%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여아의 경우도 미국 거주 아동의 비만 발생율이 8.2%로 한국 거주 아동의 5.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남아의 신체계측 결과를 한국 거주 아동, 미국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이하인 아동, 거주기간이 3년이상인 아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출생시 체중은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아동의 각종 비만도 지표(%IBW, BMI, RI)는 한국 거주 아동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의 신체계측치와 아동의 신체계측치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신체계측치와의 상관관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식품(김치, 생선구이·조림)의 섭취 빈도 점수는 한국 거주 아동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미국형 식품(빵, 콜라·사이다, 치즈, 버터·마가린, 햄버거, 피자, 스파게티·파스타, 베이컨)의 섭취 빈도 점수는 미국 거주 아동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미국 거주 아동이 한국 거주 아동보다 비만 발생과 관련이 있는 식생활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미국거주 한인아동에 있어서, 단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을 더 즐겨먹으며, 배부를 때까지, 또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는 식생활 태도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기름진 음식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식하는 아동, 식사속도가 빠른 아동, 습관적으로 간식을 먹는 아동의 비율 역시 한국 거주 아동보다 미국 거주 한인 아동에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일상 생활 패턴에서도 차이를 보여 미국 거주 아동은 한국 거주 아동보다 수면 시간이 더 길었고, 학교 등교시 도보이용 비율은 낮았으며, 주된 취미가 운동인 아동의 비율과 운동 빈도도 낮아서, 비만 발생 위험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 아동'에 대한 '미국 거주 아동'이 가지는 비만 발생 가능성의 상대위험비가 1.687 (0.930~3.059)로 관련성을 보였고, 미국 거주 아동의 거주기간에 대해 '3년 이하'에 대한 '3년 이상'의 비만 발생 상대위험비가 1.247 (0.547~2.839)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비만은 식사속도, 과식 등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고, 특히 미국 거주 아동의 경우 과식을 '하지 않는다'에 대해 '한다'의 비만 발생 상대위험비가 3.880 (1.689~8.915)로 관련성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비만과 관련된 요인으로 아동의 허리 및 엉덩이둘레, 부모의 비만도가 양의 의미있는 설명력을 나타냈고, 미국 거주 아동에서는 식생활태도와 TV 및 Video 시청이 각각  $r = 0.060$  및  $r = 0.023$ 으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미국 거주 아동의 경우, 서구화된 식습관과 식생활태도에 더 많이 노출됨으로써 비만 발생율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형성되는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접근보다는,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환경적인 요인의 통제 및 관리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한 소아비만의 예방 및 치료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 【P1-12】

#### 영양조사 참여 자원자와 임의 선정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식습관의 차이

김완수 · 김미정<sup>1)</sup> · 현태선<sup>1)</sup>

호남대학교 조리과학과, 충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sup>1)</sup>

조사연구에서 조사대상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것은 조사결과를 그 모집단에 일반화시키기 위해

서는 필수적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확률표출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영양실태에 관해 대표성 있는 정보를 얻고 있는 반면, 개개인의 연구자가 일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의 영양조사에서는 과학적인 표출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자원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임의로 표본을 선정하는 실정이다. 특히 반복적인 식이섭취조사, 혈액검사 등은 응답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표본을 선정한 후 연구에 참여하도록 동의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일간의 식이섭취조사와 혈액검사를 하기 위해 모집한 대학생 자원자 집단과 임의로 표출한 대학생 집단의 일반적 특성과 식습관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비교해 보고자, 자원자 106명과 영양과 관련이 없는 교양 수업을 선택한 학생 244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사항, 생활습관 및 식습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두 집단간에 성별, 용돈, 외식비 등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주거형태에서 자원자의 경우 자취생이 48%, 자택 거주자가 35%이었음에 비해, 임의 선정자의 경우 자취생이 32%, 자택 거주자가 48%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음주, 운동습관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자원자의 경우 흡연율이 10%로 낮은 반면, 임의 선정자의 경우 24%로 유의적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대학생의 주거형태는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므로, 각각의 주거형태에 따라 자원자와 임의 선정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를 물어본 문항에 대하여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자원자는 '보통' 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8%, '많다' 가 28%, '아주 많다' 가 5%이었으나, 임의 선정자는 '보통' 이 39%, '많다' 가 34%, '아주 많다' 가 14%로 자원자의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유의적으로 더 낮았다. 본인의 식생활에 대한 평가 문항은 주거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자원자 중 자취생의 경우 '매우 부실하다' 라고 평가한 학생은 하나도 없었으나, 임의 선정자 중 자취생의 경우 10%가 '매우 부실하다' 고 평가하였다. 또한 자원자의 경우 저녁식사 외식을 '매일 한다' 고 응답한 학생이 21%, 임의 선정자의 경우 9%로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이를 주거형태별로 나누어 분석해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자원자의 경우 임의 선정자보다 식사시간이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아침식사 결식률은 더 낮았다. 식품군의 섭취에 있어서는 주거형태를 고려하였을 때, 자원자는 해조류를, 임의 선정자는 과일군과 패스트푸드를 더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 경험이나 영양제 복용 등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이 자원자와 임의 선정자와는 일반적 특성과 식습관에서의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자원자는 임의 선정자에 비해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더 크고, 식습관이 더 좋을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른 결과이었다. 앞으로 식이섭취 조사에 참여하는 자원자의 특성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식이섭취 조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P1-13]

#### 과체중 및 비만 성인 남녀에 있어서 자신의 신체상과 체성분 및 식생활 태도와의 관계 신보경<sup>1</sup> · 박영민<sup>1</sup> · 정미진<sup>2</sup> · 박태선<sup>2</sup> · 김숙배.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전북대학교 병원 영양계<sup>1</sup>,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sup>2</sup>

현대사회에서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발생한 신체활동량 감소와 동물성 식품위주의 식습관은 비만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체중 및 비만에 속하는 성인 남녀에 있어서 자신의 신체상과 체성분 및 식생활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과체중 및 비만인에 대한 영양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과체중 및 비만(체질량 지수 > 25)에 해당되는 성인 436명(남자 239명, 여자 197명)을 대상으로 일반사항, 자신의 신체상, 체성분, 식생활 태도를 2003년 10월에 조사하였다. 일반 사항 및 식생활 태도, 자신의 신체상(제시한 9종류 신체 image 스펙트럼 중 현재 체형과 바람직한 체형)은 면접 조사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체성분 분석(근육량, 체지방량, 체지방률, 복부 지방량, 체질량 지수, 비만도, 기초대사량, 상완위 근육둘레)은 체지방측정기(Inbody 3.0)를 사용하였다. 자신의 신체상 즉 현재 체형과 바람직한 체형과의 점수 차이에 따른 8개의 그룹(-1~7)과 체성분 및 식생활 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2.2 \pm 12.6$  세, 평균체중은  $74.0 \pm 10.6$  kg, 평균 신장은  $162.1 \pm 9.4$  cm이었다. 8개 그룹 간에 연령과 체중의 차이는 유의적이지 않았으나, 신장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 또한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현재 체형과 바람직한 체형의 차이가 크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p < 0.05$ ). 둘째, 자신의 신체상과 체성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체지방량, 체지방률, 복부 지방량, 체질량 지수, 비만도, 상완위 근육둘레는